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작업에 내재된 애착적 서사성에 관한 연구

-‘ ’를 향하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조소전공

김 우 경

작업에 내재된 애착적 서사성에 관한 연구

-‘ ’를 향하여-

지도교수 오 귀 원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조소과
김 우 경

김우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_____ 이용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권대훈 _____ (인)

위 원 _____ 이종건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애착적 서사성[1]과 사유과정에 내재한 불연속성에 관한 추적에서 출발한다. 탐구 과정에서 본인은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임계점 없는 자율성을 부여받은 현대 미술이 자본의 논리 속에서 도리어 불관용을 맞이하는 실태를 목격하며, 본인의 주된 작업 태도인 주변의 이야기를 모으는 일이 권위의 당위성에 대한 대응의 단면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본인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사유방식이 만연한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왔음을 인지하였다.

디지털이 지닌 메시지 전달 방식의 특수성은 기존의 사유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문명 간 갈등 상황이 아닌 을과 을의 분쟁이 지속되는 시민전쟁[2]"이라는 시대적 특성은 작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었다. 본인은 한 사람의 삶이 시대와 별개로 살아지는 것이 아닌 사람과 시대가 서로 스며드는 것으로 견지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에 이르도록 붙잡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려 한다. 본론 서두에서는 기술적 특성을 넘어 전통적 사유 전반을 뒤흔드는 디지털 시대의 모습과

---

1) '애착'에 '-적(的)'을 더해 본인이 만든 형용사이다. 애착적 서사성은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분절된 이야기를 수집하려는 본인의 작업적 태도를 의미한다.

2)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p.81~82. "낭시는 말한다. '세계의 현재 상황은 문명들 사이의 전쟁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 전쟁의 상황이다. 도시, 시민성, 도시성은 세계의 한계에서까지, 나아가 그 고유의 개념들의 극한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의 현재 상황은 그것들 내부의 전쟁 상황이다.'*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박준상 옮김,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문학과지성사, 2005), 103쪽. 이 전쟁 상태는 용산 참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듯, 도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 시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서열 지어지고 분배되는, 권력과 민중, 권리를 가진 자와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 사이의 내전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등에 업고는 ‘어떤 것은 예술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을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적으로 묵과하고 있는 예술의 권위적 측면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탐구로부터 드러난 총체적 시대성이 본인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작업물을 통해 풀어내려 한다.

작금의 시대는 필연적인 분절성 속에서 끊임없는 시민 권리 쟁탈전에 참여할 것을 부추긴다. 여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일의 분절된 시간 속의 조명받지 않는 구석의 서사를 붙잡는 일이다. 그렇게 붙잡은 서로 다른 구석 속의 개별자들을 등장인물로 상정하고 그들을 같은 자리에 놓아둠으로써 한편의 연극적 설치를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적 가치의 연대를 모색하며, 나아가 이를 마주하는 이로 하여금 낯선 시선으로 개별자들의 가치를 재인식해 볼 수 있도록 희망한다.

본인은 작업하는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순간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왔다. 언제나 본인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있는 그대로 낯설게 맞아들일 수 있는 상태(필자의 자리가 뻥 뚫림으로써 그 어느 순간보다 선명하게 존재하는‘ ’와 같은 상태)에 놓이길 염원한다.

주요어 : 애착적 서사성, 불연속성, 개별자, 연극적 설치, 구석, ‘ ’
학 번 : 2018-22225

차 례

서론 ····· 1

본론 ····· 5

1. 불연속적 사유구조와 애착적 서사성의 바탕 ····· 05

1.1. 불연속적 사유의 근원 ····· 05

1.2. 동시대 예술 ····· 07

1.3. 마음을 존중하는 일 ····· 10

2. 작업에 관하여 ····· 12

결론 ····· 36

Abstract ····· 40

작품목록 ····· 43

참고문헌 ····· 44

서론

오래된 집들이 모인 동네가 있다. 낡고 바랜 집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하나둘 다시 지어진다... 면 좋겠지만 대개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예정에 없던 때 이른 철거에 들어간다. 원래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허울 좋은 갖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둘 쫓겨난다. 새로운 건물에 들어온 사람은 새 건물의 안락함에 폭 파묻혀 새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있던 옛 건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어디에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없다. 기회를 잡아 더 넓고 화려한 곳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투자할 뿐 이러한 노력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쉽게 외면한다.

사회는 이기적 태도를 합리적 경쟁으로 둔갑시켜 부추긴다. 부추겨져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머물러 반성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본인 또한 다르지 않아 멈추어 서면 결국 도태되는 건 자신뿐이라는 안팎의 압박에 굴복하며 반성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세계는 선별적으로 포장된 이미지와 편향된 사유를 실어 나른다. 그러는 와중에 가끔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면 사람됨이 보장되기 힘든 곳에서 과연 무엇이 건강하게 표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른다.

아서 단토는 그의 책 『예술의 종말 이후』에서 이제는 모든 창작 행위가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는 시대[3]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본인은 해외 석학의 이러한 매력적인 선언을 두고 과연 '이 사회에서 실제로 모든 창작 행위가 예술로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본인은

---

3)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이성훈, 김광우 옮김, 미술문화, 2004, p.24 "우리의 시대는, 적어도(그리고 아마도 유일하게) 예술에서는 심원한 다원주의와 완전한 관용의 시대이다.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미술대학에 진학한 이후 소수의 작가를 뽑는 수많은 공고를 보았고, 무수히 많은 작가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것을 보았으며, 스스로 삶을 지탱하는 일이 주된 이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개미지옥과 같은 공모 구조에 갇혀 버리는 것에 괴로워하며, 끝내 예술계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을 목격했다.

본인은 바로 이 대목에서 맨 처음 서술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새 건물에 입장한 이들의 목소리만이 무한한 자유 위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연스레 이전 낡은 건물에 살았던 이는 이미 자유 없는 삶의 토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예술은 살아가는 일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공평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 있는 한 예술은 온전한 관용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만일 권위를 지닌 예술기관이 현대는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일이 온전히 개인의 잘못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시대가 웃으며 행하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 주변을 맴도는 낯선 이와 환경을 무심히 지나치는 일에 익숙해지면 누군가의 생을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언저리로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둘씩 외면하기 시작하면 자유가 주어진 상태의 자기 자신의 편향된 고통 혹은 감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나의 선호가 깃든 이야기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의 힘으로는 시대의 흐름이 만드는 불연속적이고 비-반성적인 일상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어찌할 수 없음이 공동체의 빛을 빠르게 앗아가 버린다면 누군가는 손전등을 들고서라도 도래하는 어둠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빛이 사라져 가는 어두운 공간은 타인의 터전이기에 앞서 곧 우리들 각자가 속한 곳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현실을 살아내며 이 시대를 향한 저항으로 본인이 택한 것은 바로 필연적으로 분산된 사유를 한 장소에 모으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각각의 사유에 특성을 부여하고 무대 위의 배우

들처럼 상정한 뒤 연극적 설치를 도모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이야기들 사이의 서사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저항인지도 모르고 택한 작은 손전등이다. 작가 줄리언 반스는 그의 책 『시대의 소음』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닌 것”[4] 이다. 시대가 어떤 모양이든 예술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술을 하는 사람과 그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에 지극히 동감하였다. 그렇다. 시대가 어찌하든 예술은 예술의 본원이 있다. 그 어떤 것도 예술을 속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에서 구석으로 밀려난 이야기를 붙들고 한데 모아 한편의 장편소설과 같은 설치를 하는 본인(예술을 하는 사람)과 본인의 작업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이(예술을 향유하는 사람), 이 둘뿐이다.

본인은 본문의 1장에서 불연속적 사유구조와 애착적 서사성의 바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분절성과 그것에 영합하며 예술 지망생들 사이의 끝없는 경쟁을 도외시하는 현대예술의 모양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은 왜 그렇게 구석에 숨은 이야기들에 대하여 애착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려 하는지 서술하였다. 이어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의 분절성과 본인의 애착적 서사성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서술하였다. 파편적으로 기록된 각각의 작은 이야기들은 점이자 별이 되어 설치 공간 내에 하나의 이야기로 모이게 된다.

희미한 빛을 뿜어내는 작은 별 속에는 본인의 짧은 생과 어제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생이 함께 담겨 있다. 빛 공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작은 별들을 집합(緝合)한다. 작은 부분들이 모여 커다란 하나가 됨으로써 목소리를 내도록 한다. 그 앞에 선 풍경 향유자는 눈앞의 풍경을 치우침 없이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바로 그

4) 줄리언 반스, 『시대의 소음』, 송은주 옮김, 다산책방, 2017, p.135~136. “예술은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모든 시대의 것이고 어느 시대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이들의 것이다. …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다. … 그래서 그는 예술의 참된 정의는 편재하는 것이며, 예술의 거짓된 정의는 어느 한 특정 기능에 부여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것이 본인이 작업하는 일에서 붙들고자 한 희망이다.

본론

1. 불연속적 사유구조와 애착적 서사성의 바탕

1.1. 불연속적 사유의 근원

이 시대에는 적절한 기계와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 디지털 세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다. 디지털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공유한 많은 이야기를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사운드로 포괄하고 있으며,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시시각각 그것들을 널리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가히 이동식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디지털을 매개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갈래의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실현된다. 이 속에선 시간의 병렬적 흐름이 가능해진다.

직렬적 시간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으며 다발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들은 그것을 구하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기 속에서 신속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용자는 새로 맞닥뜨린 정보를 채 흡수하기도 전에 재빨리 웹 창을 끄고 새로운 창을 생성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일관적'인 사유 방식이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일정한 사유 공간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이곳, 저곳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병렬적 사유는 이제는 익숙한 방식이 되었다.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경험을 습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에 도드라지는 유목민적 삶과 맞물려 머무름을 잊어버리는 일에 일조했다. 머무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체의 급증은 아직 파편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타인의 몸의 분절을 돕는다. 분절된 몸은 이미지를 빠르게 소비하는 일에 능숙해진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동안 디지털 속 일상은 일관적으로 이어지기보다 손쉽게 중단되고 분리된다. 분리되면 깊이를 얻기 어렵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담은 무수히 많은 정보와 재화와 풍광은 그것을 처음 마주했던 시공간에 머물러 박제된 듯 우리의 인식 속에서 경직된다. 물질세계에서 단시간 내에 여기서 저기로의 이동이 예정된 때에는 이동 자체가 주요한 일이 되며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은 희미해지는 것처럼, 창에서 창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부산스럽게 연결된 고리 자체들만이 선명하게 남는다.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링크는 연결됨이 아닌 이전과의 결별이다. 여기에는 깊이를 향한 연속성이 아닌 분절된 확산이 있다. 필자가 인식한 동시대는 링크의 링크의 링크 …에 처해있다. 그것은 때로 레이어의 누적에서 비롯된 중층적 깊이를 지니기도 하지만 이보다 앞서 인식되는 특성은 연결되어 넓어진다는 전달 과정상의 구조적 속성이 필자의 삶 속에서 사유의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상이한 장소에 속하게 되는 물리적 일상 위에 디지털 속 다양한 창을 여닫는 일이 더해진 현실은 몸이 지녀온 사유 체계 또한 그것에 맞게끔 변형되도록 돕는다. 사방에서 길어온 사유는 이제 구조적으로 쌓이기보다는 분산적으로 집합된다. 한곳에 모인 상(像)들은 상이한 레이어의 중첩이자 분절된 일상의 혼합된 그림자다.

1.2. 동시대 예술

물질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비슷한 비중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동시대 예술 작품 속에서 무수히 많은 디지털 이미지가 중첩됨을 목격한다. 중첩된 이미지 속에는 나의 체험에서 비롯된 이미지와 쉽게 얻은 남의 이미지가 뒤섞여 있다. 남의 이미지를 나의 이미지로 조작하는 일은 물질세계에서의 드물어진 나의 체험을 누적시키는 일보다 훨씬 수월한 일이다. 수월하기 때문에 빈발하는 만큼 어떤 이들에게는 더는 이미지 조작이 아닌 합리적 변용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이 속에서 예술은 자음화[5]된 것이거나 지극히 이미지적일 확률이 높다. 디지털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담기는 것들은 빠르게 범주화되고 그렇게 모인 작은 그룹들은 서서히 힘을 갖는다. 능수능란한 디지털 세계의 흐름 속에 이미지적인 것과 거리가 먼 물질성 자체가 강화된 작품들은 유명을 달리한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들은 노출이 잘되지 않고 그 결과, 쏟아지는 이미지 속에서 그것들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심보선은 동시대 예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키치적 태도의 배후에는 모든 상징 활동의 위계와 구별을 쓸모없는 것으로 소거해버리고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혼합하는 산업주의의 논리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산업주의의 관심은 기껏해야 낭비적인 아니무스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있을 뿐, 아니마, 즉 내면성의 표현으로서의 미(美) 따위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6] 동시대에 물질을 다

---

5)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p.85. "노발리스Novalis에게도 자음은 산문과 의미와 유용성을 의미했다. '자음화'는 억제되고 제한되고 가두어지는 것을 뜻한다. 자음화된 정신은 미지의 것과 비밀스러운 것과 수수께끼의 부정성을 알지 못한다. 이에 반해 모음은 유혹적이고, 시적이고, 낭만적이다. 자음은 먼 곳을 배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먼 철학은 시처럼 들린다. 외침은 멀리 퍼질 때 모음이 되기 때문이다.'* Novalis, *Briefe und Werke*, P. Kluckhohn 편, Bd. 3, Berlin 1943, Nr. 1140. 오늘날 우리는 분명 자음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소통은 자음화된 소통이다. 여기에는 비밀도, 수수께끼도, 시도 없다. 이 소통은 간격과 거리가 없는 상태를 위해 머무름을 제거한다."

6)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p.61.

루는 작업을 한다는 것, 물질 속에 내면성을 담는 일이 중심 가치가 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작업을 하는 동안 들인 시간을 분무기에 담아 허공에 분사하는 일과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결국 내면성이 중심이 되는 창조 행위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간을 창안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뒤이어 작가는 낭시를 인용하며 세계는 이제 문명사이의 전쟁이 아닌 시민전쟁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도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이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7] 이는 자연스럽게 예술계에도 접목할 수 있다. 앞선 작가의 주장을 적용해보자면 권력을 지닌 자(대대적인 작가 공모를 주관하는 권위를 지닌 공립기관과 사립기관 등)와 권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열망하며 권위에 봉사하는 예술 그리고 권력을 박탈당한 예술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지니고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공모 기관들과 국가와 사회에 의한 유희적 신체[8]를 진정 자유로운 신체라 착각하며 열심히 즐기고자 하는 추종자들, 마지막으로 권력을 박탈당한 채 자신들을 비호하거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동시대의 전달 체계를 중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해진 새로운 위계 체계가 되었다. 자본과 권력이 모인 곳에는 확연히 눈에 띄는 반복적인 자기 노출이 있다. 권력을 지닌 기관은 무엇을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얼마나 자주 보일 것인가에 집중하며 정당성과 권위를 획득한다. 이로써 쏟아지는 노출을 시시각각 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이들과 디지털 시대에 쉽게 영합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차적 소외에 놓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에 봉사하며 예술적 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이들이 창조 행위에 있어서

---

7) 위의 책, p.81~82.

8) 위의 책, p.126. “많은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이 국가와 시장의 후원을 받아서 ‘유희적 신체’를 발명하고 있음을. 이 같은 발명 행위들이 국가와 시장의 관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치되고 있음을.”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본인에 매여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진정 자유로운 몽상으로부터 비롯된 창조를 할 수가 없다. “몽상은 뚜렷한 의지 없이 자연스러운 상상력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신활동이다.”[9] 시민 전쟁에 뛰어들어 권력을 탐하면 그것에의 의지가 발동된다. 의지는 자연스러운 상상력을 저해한다. 권력을 향한 의지를 “소유하는 자는 소유된다. 마법에 홀리듯 사로잡힌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다.”[10] 예술 권력을 소유하려는 이는 세상을 보는 눈 안에 이미 그것을 들여다 놓고 있다. 이로부터 나온 상상력이 한껏 정제된 모양을 하고 있으리란 것은 조심스레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상상력이란 예술 권력에의 의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다. 권력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실제 삶과 살을 대고 있는 체험과 조우하게 된다. 이는 곧 온전한 삶의 체험 또한 개인의 의지로부터 빗겨나 있다는 뜻이다. 의지로부터 빗겨나 있다는 것은 본인 안에 들어오는 새롭지만 늘 같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 스며드는 세상을 다각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본 세상이 정교하고 조심스레 다뤄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자연스레 그 속에 세상에 대한 작가만의 의식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9) 홍명희,『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p.43.
10) 베르트랑 베르줄리, 『슬픈 날들의 철학』, 성귀수 옮김, 개마고원, 2007, p.278.

1.3. 마음을 존중하는 일

분절된 좁은 단위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기 위해서 직관적인 인상을 남기는 일이 중요해졌다. 짧은 머무름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가보다 일단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달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야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보는 이의 눈에 들기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가 중심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물질세계에서 또한 그러한 성질을 구현하며 의도로 점철된 유희를 즐긴다.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한 이 시대의 분절성은 사유의 구조와 속도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시대성에 영합하는 동시대 예술의 팽창은 예술에서의 기만적 유희성을 키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상에 관한 작지만 중요한 감지들은 어디론가 밀려난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감지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사실에는 감지를 하는 주체의 힘이 약하여 빈번히 노출이 되지 않거나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이 숨어 있다. 예술계는 연예업계 혹은 패션업계처럼 몇 해가 지나면 금세 유행이 바뀌어버리는 예술업계가 되었다. 유행은 작품의 표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키움과 동시에 내면성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본인으로 하여금 분절된 사유체계를 자연스레 흡수하는 한편 주요한 작업적 태도로서 중심의 흐름에 속하지 못한 채 소외되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태도를 이끌었다.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대한 권위의 흐름에 대항하며 어느새 밀려난 구석을 향해 집요한 관심을 갖곤 했다. 그 구석엔 끝없는 혼란 속에 던져진 본인의 어두운 마음이 있고, 빛이 들지 않는 세상 어딘가의 얼굴이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인간의 잔악함이 극도로 표출된 20세기 초로부터 한참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됨을 빼앗긴 이들이 존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 도처에

있으며, 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목격하는 끔찍한 순간 또한 공존한다. 이처럼 외면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 그 강렬함은 본인에게 있어 여기서 링크된 저기를 향해 갈 때 놓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후 항상 지니고 다니게 되는 강렬한 생각은 틈이 나면 꺼내 읽으려고 가방 속에 넣어둔 낡은 편지처럼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 본인의 주변이 아무리 분주히 돌아가도 휩쓸려 사라지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일으키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된다.

본인은 그 무언가를 주섬주섬 모아 챙긴다. 쉽게 잊히거나 조명받지 못하는 마음들을 모아 그것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모종의 움직임을 더한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군집을 이루도록 물리적 공간의 구석구석을 활용하며 관계의 활성화를 시도한다. 본인의 집요한 애착이 담긴 오래된 편지 같은 그것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줄지 모를 숨겨온 이야기를 한마디씩 뿜어낸다. 뿜어낸 말은 무언의 대사가 되고 그 앞에선 관객은 덩어리진 극 속에서 낯선 순간을 맞이한다.

본인에게는 존중받지 못하는 본인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일, 더욱더 빠르게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과 사건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존재했는지도 모른 채 잊히는 것들로부터 본인이 느낀 괴로움을 모르는 체하고 싶지 않다. 본인이 느끼는 것이 마음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본인 자신의 일임을 인지한다. 이는 본인에게 있어 예술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합당한 부여잡음이다. 유희적 신체를 발명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짙은 허무에 가두지 않으며, 잊을 수 없는 일을 작업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일은 바로 본인의 예술적 근간이다.

2. 작업에 관하여

작품1 <*거치지 않은 분기점*>, 테라코타, 나무팔레트, 혼합재료,
103×101.3×219(cm), 2018

2018년 겨울, 본인은 무기력함에 휩싸여 시간을 축내고 있었다. 좁아진 마음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허겁지겁 작품을 만들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기력이 없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할 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본인을 침잠시키는 무기력함을 밝혀 보기로 했다. 무기력을 본인의 눈앞에 만들어 놓아 봄으로써 그것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보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거치지 않은 분기점*>이다. 앞과 뒤가 정해지지 않은 꾸물거리는 모양의 도자들, 시차를 두고 하나둘씩 구워진 것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분절하며 확산되는 웹 창들처럼 본인의 손에서 태어나 가마로 들어가는 서로 다른 점

토 덩이일 뿐이다. 그것들은 인과 관계없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 구워졌다. 단단해진 것들은 무한정 부유하는 고리의 모양으로 아슬아슬한 구조물 여기저기에 걸려있다. 무작위로 공간을 확장하는 것과 시작과 끝이라 적힌 상태로 복부가 터져버린 한 마리의 뱀어[11]는 서로 다르지만, 유사점이 있다.

처음과 끝, 앞과 뒤, 위와 아래와 같은 이분법적 방향성으로부터 떨어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본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여 남들도 모르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손 치더라도 상대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없는 것처럼. 본인의 눈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일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평소 생활에서 낯설게 느껴지곤 했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개입된다. 이것을 굽다가 저것을 굽기까지의 시

11) 머리는 물고기 몸은 뱀인 작품 내 삽입된 변종 물체

간 사이에 서서히 끼어든다. 잘게 쪼개진 일상 속에서 본인이 낯설게 습득한 지식과 물질을 직접 매만지며 몸으로 느낀 변화가 자유로운 상상을 만나 한데 엉겨 붙는다.

모든 방향이 전방이 될 수 있는 개체들[12]은 같은 지붕 아래 서로에게 객체가 되는 변화를 겪는다. 본 작업 속 지붕 구조물은 개인적으로 선명하게 인식한 특정 장면에 본인의 애착이 형성되어 작업 속 서사의 일부분으로 반영된 것이다. 학부 시절 휴학 기간 본가 아파트에 머물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아파트는 베란다 앞 넓은 공터를 마주 향해 있었는

12)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김상훈 옮김, 엘리, 2016, p.160~161. “기괴하면서도 논리적이었다. 모든 방향으로 눈이 있으므로, 헵타포드에게는 어느 방향도 ‘전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데 바로 그 맞은편 땅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본인은 매일 같이 같은 일상을 집에서 보내고, 같은 시각 베란다 창으로 건너다보이는 건설 현장의 인부 아저씨들은 위태로운 높이의 비계 위를 마구 건너다니며 집을 건설하고 계셨다. 본인이 비슷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저씨들은 매일 같이 현장에서 순식간에 집을 쌓아 올렸다. 집이 지어지는 놀라운 속도를 목격하며 본인은 과연 저런 위태로운 누각(내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지어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속한 건물 바로 앞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바람에 지반과 엉성한 철골 그리고 인부 아저씨를 생생하게 보았던 기억은 몇 년이 흘러 작품 속으로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짐을 나를 때 쓰는 나무 팔레트를 해체하여 지붕을 만들고 각재를 이용하여 기둥을 만들었다. 외부환경에 오래 노출된 탓에 휘어버린 팔레트 자재는 휘어있는 모양 그대로 이어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접합면이 서로 맞닿지 않아 못이 박히지 않았다. 고민 끝에 드로잉북 한 장을 뜯어다 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 나무를 얹었다. 나무들의 무게가 꽤 나갔지만 우습게도 본드 묻은 종이 한 장으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 (경이로운 순간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누각 위에 혹은 안에 채워진 물체들은 무기력이라는 그 시작처럼 대체로 축축 처져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가로대에 늘어져 있거나 실에 매달려 있거나 안전한 고정 장치 없이 지붕에 얹혀 있거나 말이다. 최종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설정 없이 머릿속 산재한 이미지만을 쫓았다. 하나의 개체에 대한 구도를 잡고 나면 그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일이 틀어지면 예정에 없던 구도를 떠올려보며 진행해나갔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변화되고 또 예상치 못한 덩어리에 의해 지탱되기도 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어느 하나 존재를 과시하는 것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잘조잘 떠들어댄다. 뚜렷한 주장이 없는 위태로운 구조물은 그냥 자기의 자리에 있다.

작품2 <*파란 이곳과 저곳 그곳의 쓰임*>, 벚나무, 테라코타, 두부, 석쇠,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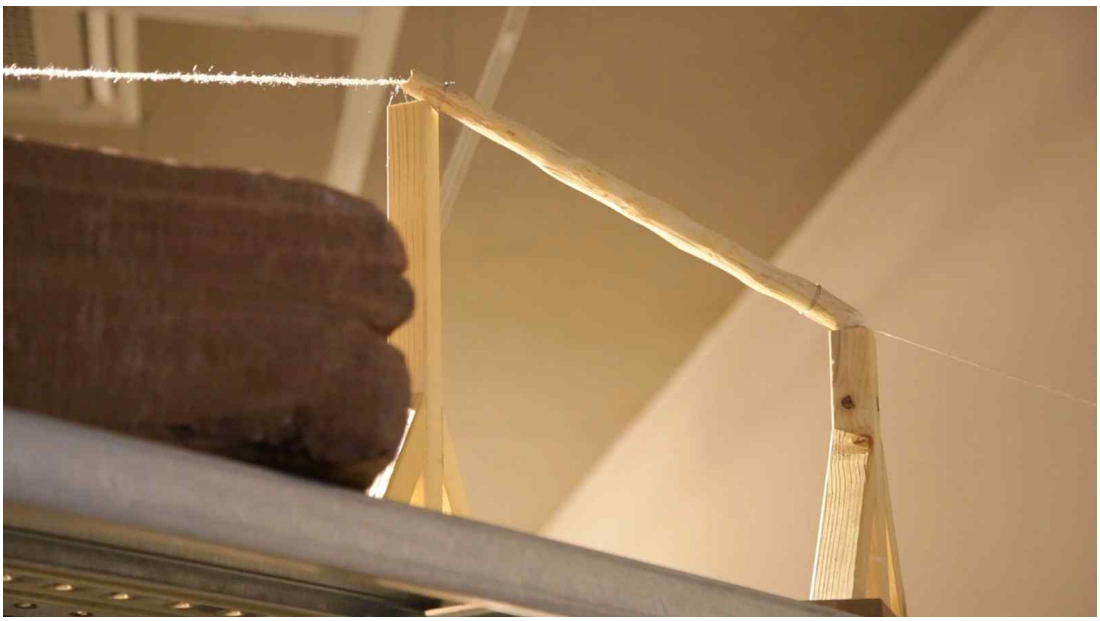
여느 때처럼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고 제시간에 맞추어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이었다. 본인은 친구와의 대화 도중 스스로 이야기의 주제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함께 시간을 보낸 직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본인의 과했던 긍정적인 언사와 태도가 급작스레 낯설게 느껴졌다. 과하게 긍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만큼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두꺼운 껍질이 살짝 뜯겨 벌어지고 그 속의 속살이 제 몸을 드러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길로 곧장 작업실로 가서 엎어진 바가지 같은 모양의 무언가를 빚기 시작했다. 얇게 펼친 다른 흙으로 그 겉을 감쌌다. 적당히 가운데를 푹- 찔러 살을 갈랐다. 속의 살은 아주 연한 부분임을 알 수 있도록 조각도로 흠집을 내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선 즉흥적으로 정수리 부분에 음각으로 원형을 팠다. 평소 파란색을 쾌감과 우울감의 색이라고 여겼던 본인은 파란색이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는 외눈박이의 정수에 칠하기에 적합한 색이라 생각했다. 이윽고 외눈박이의 정수리에 파란 점이 생겼다. 그렇게 외눈박이는 탄생했다.

감을 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외눈박이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완고한 덩어리들(반대편 돌멩이)의 대척점에 있다. 그 둘은 반달 모양의 판 위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반달에 연결된 클립을 하나씩 엮어 만든 줄은 감은 눈과 뜬눈들의 힘의 치우침에 의해 당겨 올려지기도 하고 뚝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클립 줄 끝에 달린 보글보글 끓는 듯한 오물 덩이는 아슬아슬한 상태의 정점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태연자약하게 멈추어 있기도 하다. 가짜 오물과 가짜 균형과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는 '이곳'과 '저곳'과 '그곳'으로 지칭될 뿐이다. 석쇠는 세상이고 두부는 사람이다. 석쇠에 눌려 으스러진 두부는 무자비한 오물로부터 구해질 수도 있고, 구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두부 아래에서 죽-길게 늘어진 파란색 천막은 이러한 부유하는 상태의 현현이다. 늘어진 길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파란색 도자기 뭉치를 품은 청소용 대걸레가 서 있다. 도자기 뭉치는 사실 오물이 있는 통에 담겨 있던 흙이다. 그 흙이 다 마르고 녹이 묻어 더 이상 어떠한 외부작용에 의해서도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서자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 흙 덩어리를 꼭 작업 안에 넣고 싶었다. 대걸레는 흙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 속이 파져야 했고, 이것은 저편에 있는 것들의 균형 관계를 조율하려는 듯 먼발치에서 '그곳'의 역할을 했다.

작품3 <*나는 당신의 어제를 알 수 없어요*>, 삼나무, 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나는 당신의 어제를 알 수 없어요>*는 배수로와 배수로에 딸린 뗏목 그리고 털실이 관통하는 짤막한 관과 이불, 모터와 나무망치로 구성되어 있다. 배수로와 뗏목은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뗏목 위의 구는 아주 작은 무게, 즉 뗏목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옆의 배수로는 알 수 없는 지난 시간을 감춘다. 그 속에선 완성된 뜨개질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 이것은 속을 깎아 만든 작은 관을 관통한다. 텅 빈 관을 지나 이불 위를 아주 천천히 스치듯 지나간다.



'이불은 너와 나의 아주 오래된 기억이다. 너는 이불 속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너의 어머니도 그랬다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 작은 행동이 참 신기했다. 사소한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보여주는 신호였을 것이다. 나는 이불을 만듦으로써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나 보다. 그렇게 작은 소나무 이불을 만들었던 시간을 지나 제법 큰 이불을 또다시 만들었고, 배수구에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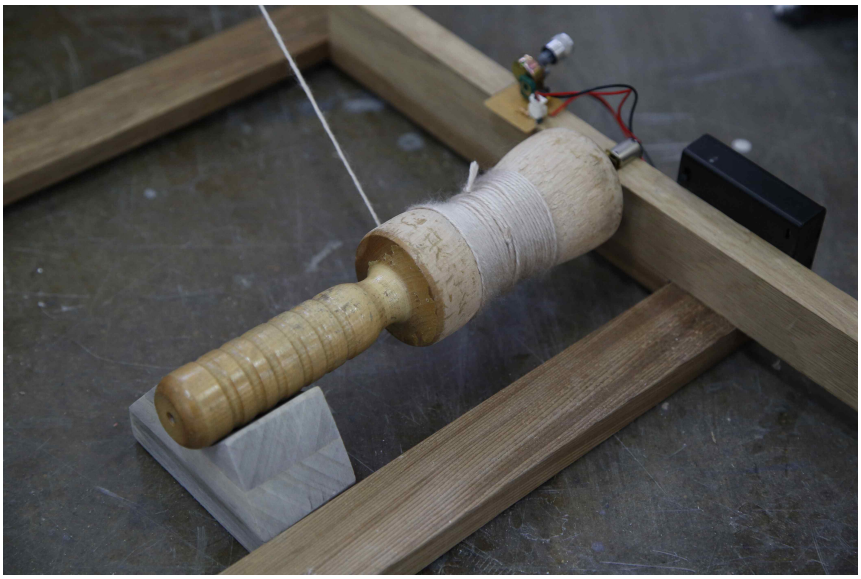
뜩 붙였다가 떼어낸 오렌지색 점토를 다시 뭉쳐 엉뚱하게 이불 위에 올려두었다. 만들다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한참을 지나온 이불은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오래전의 일상으로부터 날아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

<*나는 당신의 어제를 알 수 없어요*>라는 제목이 생겨나기까지는 어쩌면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아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절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최초의 여실했던 순간이 본인 속에 오래 잠들어 있다가 불현듯 지금의 이불로 나온 것이다. 본인은 이 작품을 만들며 아래와 같은 하나의 장면을 상상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나는 문 안쪽에 있다. 문 바깥쪽에는 그들이 있다. 나는 3초 뒤에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며 바로 눈앞에 있는 나만 볼 수 있지 내가 문 뒤에서 살인을 저질렀

는지, 방귀를 뀌었는지, 춤을 췄는지, 잠깐 졸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나는(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며 그들을 생각한다. 판단하고 연민하고 질투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사실 나는 네가 3초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안다고 말한다.'

관객은 멀리서 실을 본다. 실은 마치 멈추어져 있는 것 같다. 서서히 작품 가까이에 다가가면 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나아가 움직이는 털실만 보아서는 그것이 누군가 저편에 서서 실시간으로 풀어주는 실인지, 어디 조그만 기계가 내뱉는 실인지, 풀리는 중인 뜨개실인지 알 수가 없다. 주변을 둘러보다 쭈그려 앉아 배수로를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뜨개질이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배수로 속에선 소리 없는 느긋한 움직임이 지속된다. 풀린 실은 짧은 관을 통과해 이불과 오렌지색 덩어리를 지나 바닥 쪽에 붙어 있는 모터 옆 나무망치에 서서히 감긴다. 감긴 실은 방향이 없다.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통조림 안에 욱여넣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반부패 상태로 자신 안에 군림한다. 언젠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사는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우리는(본인은) 날마다 착각하고 날마다 오해한다. 착각과 오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을 역하다고 느끼게 될 때 무척이나 괴롭기 때문일 테다. 그렇게 조금씩 피하다 보면 통조림은 쌓이고 악순환이 된다. 본인은 당신의 어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닫는 지점으로부터 너에 대한 이해를 기대한다.

작품4 <*계단에 올라 발판을 밟아주세요*>, 테라코타, 비계,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0

본인은 미술대학을 다니는 동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마음 편히 작업 재료도 사고 싶었던 학부 시절 내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일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쌓이는 만큼 이는 본인이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일하며 느꼈던 '먹고 사는 일과 맞닿아 있는 삶'에 관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본인이 열심히 보낸 시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처럼 작업에도 시간과 노력만 다하면 저절로 작업에 진정성이 생기고, 그것만으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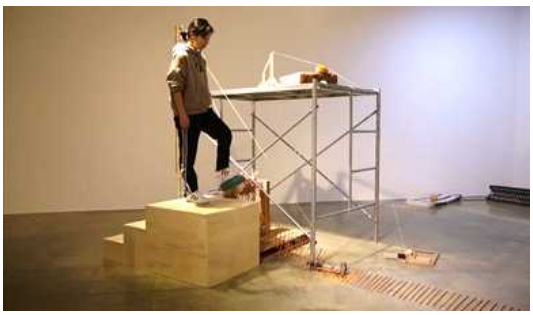
그러나 일(노동)!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유일무이한 의미가 되어 본인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본인은 허둥대고 울부짖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본인은 스스

로 하는 노동과 사회가 이야기하는 사는 일의 숭고함 사이의 양가감정 속에서 왜곡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본인 안에는 본인이 아닌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역사 속 지나간 이들의 확신과 단련되지 못한 본인의 낯선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속 희미한 소리를 오래간 부여잡고 있다 보니 꽤 시간이 흐른 뒤 노동에의 맹목적인 의미 부여와 버텨냄이라 적힌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그 순간 본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났다. '노동을 파괴하면 그 순간 몰지각 속에 행해오던 노동에 대하여 지각할 수 있어!'라는 무언의 선언이 들렸다. 명확한 내부의 외침은 다른 부차적인 생각을 차단했다.

손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다. 만들게 될 작품 속에는 그저 긴 시간의 노동을 들여 만드는 무언가와 그것을 파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 함께 있으면 되었다. 만들어지게 될 것은 단순했다. 긴 노동과 그것을 파괴하는 장치가 있으면 되었다. 두 가지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한곳에 모았다. 일단 일이 시작되면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손이다. 손은 노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질을 직관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손이 만지고 기억하는 모든 물질을 지나 최종적으로 붙잡은 물질은 흙이었다. 흙을 구워야겠다.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오랜 시간을 들여 굽고 다시 그것을 부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빚고 있다는 생각을 잊을 때까지 빚었다.

그렇게 길게 빚은 흙들을 구웠다. 가늘고 긴 흙은 잘 부서진다. 아무리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원래 덩어리가 지닌 무게가 적은 것은 힘이 약하다. 그런 것들은 무수히 모여야 그 존재가 겨우 눈에 띈다. 긴 흙을 길게 늘여보았다. 흙을 돗자리처럼 펼쳐 하나의 선으로 엮을 요량이었기에 양 끝에 미리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았다. 길게 엮인 흙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녔다. 흙덩어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였는데 바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결국에 선택한 것은 두루마리처럼 흙들을 묶어 이동하는 것. 그런데도 뜨거운 열에 소성되는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모양이 이리저리 뒤틀린 흙들은 적은 압력에도 쉽게 부딪쳐 깨어졌다.

길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길보다 조금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야 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려 보니 계단보다 큰 구조물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흙길은 커다란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했고, 구조물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비계를 선택하였다. 비계는 임시적이면서도 완전한 구조물이다. 분명히 있다가 어느새 사라진다. 비계 기둥에 달린 긴 나무 막대기 끝에는 도르래가 달려있다. 도르래에 걸린 긴 노끈은 망치의 상하 운동을 돕는다. 관객이 계단에 올라가 파란 발판을 밟으면 망치가 올라간다. 망치가 올라가는 동안 이미 깨진 흙은 흰 석고 기둥에 말려 올라가고 새 흙이 관객 쪽으로 조금 움직인다. 관객이 발판에서 발을 떼면 망치가 내려가며 딸려온 새 흙이 보기 좋게 깨진다.



눈앞에 놓인 구조는 관객이 구조 속으로 건너옴으로써, 그리고 그 속에서 발판을 밟음으로써 시작된다. 관객이 계단 위에 올라가면 아래가 내려다보인다. 아래의 부서지는 흙길을 보면 발판은 보지 못한다. 관객이 발판을 밟는 자신의 발을 보면 줄어드는 길을 보지 못한다. 관객은 그 무엇도 온전히 한 시야 속에 넣을 수 없다. 관객이 연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관객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흙이 부서지는 소리와 부서진 흙들이 흔들리는 소리이다. 그 사이를 간헐적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발판을 밟는 소리, 흙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석고 기둥에 말린 조각난 흙들이 딸랑이며 서로 부딪치는 청아한 소리는 상반되면서도 이상하게 닮았다.

이것과 저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 구현되었다. 관객이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며 발판을 밟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구체적인 몸짓은 이후 어떠한 반향을 일으킨다. 한 번의 몸짓이 공기를 가른다. 마치 누군가의 손에 들린 컵 속 커피가 몸의 미동에 의해 조금 흘러넘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분절이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바람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바람에는 환기가 있다. 그것은 형체 없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발길을 멈추었을 때 어떤 의도적인 의식 없이 선선한 온기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환기는 고리 귀걸이와 같은 얇은 구멍을 지나 푹 하고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과 같은 깊은 구멍을 수-욱하고 지나가는 강렬한 것이다. 거기에는 무엇을 느꼈나 되묻는 지점 자체가 부재한다. 느낀 순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연한 것, 거기에 바람 같은 작업이 있다. 계절이 바뀌는 경계에 서면 어제와 다른 바람의 냄새를 맡을 때가 있다. 그러한 바람의 냄새는 지금 살아있음을 떠올리게 한다. 어떠한 강요도 없이 그저 지금 살아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다.

작품5 <*솔직하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이 유일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때에 그나마 오류가 적지 않겠습니까*>, 폐목, 사운드, 소금, 90×170(cm), 2020, 김우제, 박상민

길을 걷다 불현듯 머릿속에 멜로디가 흐른 적이 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고요하고 깊어서 꼭 악보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본인은 떠오른 악상을 바로 기록할 능력이 없음으로 녹음기에 흥얼거리는 목소리를 저장했다. 소리는 텍스트보다 강렬했다. 한번 기록했을 뿐인데 그 이후 본인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다. 나중에 '그 소리를 꼭 녹음해야겠다.' '작업 안의 한 요소로 활용해야겠다.'라고 느낀 것은 어쩌면 오래도록 그것이 본인을 따라다녔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소리는 반년의 시간이 지나 음악에 재능이 있는 두 친구를 만나 소리로 만들어졌다. 피아노를 잘 치는 한 친구가 어설픈 흥얼거림을 멋진 피아노 소리로 만들어주었고, 비트에 소질이 있는 한 친구가 피아노 소리를 악보로 변환해 약간의 수정

을 더 해 완전한 소리로 탄생시켜주었다.
이후 소리는 소리대로 본인의 인식 저편에 기록이 되어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작업하다 우연히 미대 뒤편 재활용품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치다가 아주 단단한 상판이 하나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전에는 아주 견고한 책상 상판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그것을 꼭 다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졌다. 조금 움직여보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 혼자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톱으로 상판의 일부를 덜어내었다.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해보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관해 생각해보는 일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찾아온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아무도 없이 휑하니 비어있는 순간, 오롯이 나만 존재하는 순간에 사나운 욕심이 줄어들며 내가 짊어질 무게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일과 무게를 쪼갠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나라는 낯선 사람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소외된 자신을 보듬으며 무게를 덜어내었으나 여전히도 원목 상판은 무거웠다. 이것을 변용시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상하게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에 이어 옮길 수도, 쉽게 바꿀 수도 없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강해지자 그 속에서 본인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는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견고한 벽 같이 다가오는 순간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본인은 상판을 이러한 벽으로 인식하며 손잡이를 하나 달았다. 이는 단단한 벽을 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품6 <*아주 가까운 이를 위한 두루마리*>, 천, 자수, 가변설치, 2020

'생생하게 체험한 감각은 이해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불분명한 모양으로 이따금 나를 괴롭힌다.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오류를 범하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발화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말들을 새겨본다. 새겨진 말들의 뭉치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없다. 그것들끼리 면면이 달라붙어 밖으로 나올 틈 없이 갇혀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살거나 죽는다. 다만 끝까지 살아남는 감각만이 언제고 나의 지금으로 소환되어 나를 감싼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감각은 변하지 않는 가장 최소한의 물질이 되어 한 사람을 구성한다.'

두루마리 작업을 하게 될 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접할 때마다 유독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한 말들을 떠올리고 싶어 떠올렸다기보다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져 올라왔다는 느낌이 강렬해 가슴에서 나는 말이라 하겠다) 그렇게 순간에 스치듯 파고드

는 말에는 이전에 경험한 어떠한 일들과도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문장으로 기록된 이후에도 그 어떤 의미도 지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바람은 내가 서 있는 학교'와 같은 말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연유하였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수구 입구에 쌓인 머리카락처럼 모여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구멍을 모두 꽉 막아버릴 때, 본인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모아 두루마리 휴지라는 형태를 빌려 새기기 시작했다.

휴지에 적힌 말들은 나중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는 단상이라든가, 시작부터 끝까지 솔직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기 고백적 일기는 아니다. 내가 말을 내뱉는다고 무엇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기엔 숨통이 막혀 터져버릴 것 같아 쏟아내는 말들이다.

작품7 <뾰족>, 바늘, 빗,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0

뾰족한 빗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애태워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애타다'는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13]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애타는 마음은 안온한 시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차근히 접으려 노력하는 마음에 끼이는 이상한 마음이다. 익숙한 공간을 천천히 걸어 나가는 이에게 찾아드는 낯선 두려움이다. 그러한 두려움이 커져 일상생활을 마비시킬 때 나는 바늘로 된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찌르는 듯한 고통이다. 내버려진 철근 덩이 위에 툭 하고 얹어진 것과 같아 쉽게 잊고 지낼 뿐 어느 순간에나 유유히 존재해왔던 슬픔-이다.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년 7월 19일 수정, 2020년 12월 27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결론

본인은 잘 만들기 이전에 잘 보고 싶었다. 동시대 쏟아지는 미술 작품을 보며 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미술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해 예술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앞선 이유를 찾기 이전에는 깊이 들여다보기가 어려웠다. 어릴 땐 흥미로움을 느끼는 곳에 선망의 대상도 숨어 있었는데, 왜 커서는 그 대상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건지 궁금했다. 관심이 희미해진 것인지, 아니면 본으로 삼고 싶은 작품이 드물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좋은 작품이 희귀해졌다고 말하는 것보다 본인의 흥미가 줄어든 것이라 단정 짓는 편이 마음은 편했다는 것이다.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탄생하는 작품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구태여 찾을 필요 없이 본인의 마음을 탓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본인의 메마른 태도에 관심을 더하려 애를 써도 본인의 마음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일이라 억지로는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다른 학문 분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동했다. 본인이 속한 미술 분야 이외의 작품들을(깊은 고찰이 엿보이는 글과 이미지는 막연히 모두 예술로 여겨지곤 했다) 그것이 탄생한 시대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마주하며 앎의 허기를 달랬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본인이 지키며 말하고 싶은 이야기에 관해 멈추지 않고 아주 조금씩 이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추상적으로 발설되었고, 표현되었고, 때로는 보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풀지 못한 실타래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풀리게 되듯 조금씩 혼란스러움 또한 잠재워졌다.

그렇게 본인은 미술대학을 다니며 품던 본인의 의문에 대하여 조금이나

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본인이 왜 일부의 미술 작품 속에서 이미지의 빈곤성[14] -이미지에는 개인 경험의 총두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은 특성-을 느꼈는지, 왜 쏟아지는 전시 앞에서 마비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는지, 어쩌다가 본인 자신은 허술한 재료에 끝없는 이야기를 부여하며 극을 꾸리는데 열을 올려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소외를 일삼는 현대 예술과 예술 작품이 점차 두께를 상실해간다는 사실에 대항하는 태도로서 집착에 가까우리만치 이야기들을 붙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사는 그 이야기를 지닌 존재에게 힘을 부여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혹은 그것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가와 별개로 누군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 이야기의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서사를 짓는 마음에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본인은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크게 두려움을 느껴왔다. 두려움을 느낄 때면 이불속에 숨어버린 아이처럼 고요한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손에서 놓치며 끝없이 가라앉곤 했다. 잘 걷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 나의 손과 발을 붙잡는 것처럼 자주 뒤를 휙휙 돌아봤다.

본인이 세상을 마주하며 예민하게 감지한 의문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작지만 중요한 저마다의 의문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동시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온몸으로 느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바로 지

---

14) 지영래, “2장 사르트르의 미술론(자코메티)-절대에 대한 탐구”,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서동욱 엮음, 문학과지성사, 2014, p.58~59. “… 이미지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빈곤하다. 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상이한 요소들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그 요소들 사이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관계만을 맺는다. … 다시 말해서 지각의 대상은 지각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어떤 것임에 반하여, 이미지의 대상은 그것을 상상하는 의식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금 여기에 있음을 느낀다는 건 심장의 강한 진동을 느끼는 일이다. 그건 겨울이 접히는 무렵 봄이 깃든 바람결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순간이다. 또한 만일 세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체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억겁의 시간으로 똘똘 뭉쳐져 있을 그 웅대한 덩어리를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레 만져보는 일과 같은 것이다.

다시, 내가 여기 있음은 나를 잊어버리는 일이다. 내가 감각하는 것만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순간이다. 내가 나의 감각으로 가득 차오를 때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된다. '여기'라는 인식은 나로 하여금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든다. 달리 말해 '여기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 '　　' 텅-비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세상을 감지할 때 그 순간 창조 행위가 시작된다.

현재를 인식하지 않고 순간에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영위해야할 삶이 있고, 마음을 써야할 가까운 이들이 있는 한 그건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밀려드는 혼란스러운 외부의 파도가 그 속에서 만큼은 잠잠해지기 때문이며, 지끈한 머리가 그 순간만큼은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온몸으로 느꼈기에 본인은 지금까지의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애써왔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만큼 그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어둔 '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작가 허수경의 『가기 전에 쓰는 글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수많은 우연의 순간에서 시는 나온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한시라도 시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균열의 순간에 균열을 경험하지 못한다."[15] 여기서 시인임을 기억하는 일은 본인이 앞서 서술한 '　　'의 상태에 한발 다가서는 일일 것이다. 본인 또한 앞으로 창작하

15) 허수경, 『가기 전에 쓰는 글들』, 난다, 2019, p.358.

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균열의 순간에 그 벌어진 틈을 용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Abstract

This research began by tracing the "affectionate narrativity"[16] in my works and the implicit discontinuity in my thinking process. On witnessing the fact that contemporary art, which has been granted limitless freedom that "Anything can be art," faces intolerance in the logic of capitalism, I discovered that my approach toward art, of collecting stories from my surroundings, could be a way of countering the legitimacy of authority. At the same time, I recognized that my sporadic and fragmented way of thinking revealed in the creative process is intertwined with the prevalent digital era.

The digital age's distinctive message delivery method has affected the thought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which is "not a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s but an ongoing civil war between the citizens,"[17] and changed my approach to the creative process. I believe that a person's lif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era; rather,

---

16) "Affectionate narrativity"is a term coined by this artist. This signifies my creative approach of aiming to collect fragmented stories out of affection.

17) Shim Bo-seon, *Geueulin Yesul*(Burnt Art), Minumsa, 2013, p.81. "Nancy said as follows: "The present state of the world is not a war of civilizations. It is a civil war: it is the internal war of an of an enclosed city, of a civility, of an urbanity, which are in the process of fanning out to the very limits of the world, and because of this, spreading right to the extremity of their own concepts." Such a state of war, which was most conspicuous in the Yongsan disaster, is where the right to belong to an urban community and the right to be a citizen are ordered and distributed by the logic of capital. It is a state of civil war between the authority and the people, those who have rights and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 rights."

the person and the era permeate to one another. As a person liv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I aim to describe what I have so wanted to capture until now. In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d the shapes of the digital era that go beyond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hake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This study further shed light on the authoritative aspect of art, which, by following the current trends and under the guise of autonomy, has reasonably condoned the current situation of "somethings not being art." Through such analysis, this study aimed to show how the overall trends of the time influenced my creative process and my works.

Within its inevitable segmentation, the present era encourages citizens to take part in the never-ending battle for rights. What I can do in this world is to capture the unwanted narratives found in the corners of the segmented time every day. The individuals discovered from each of the different corners become characters and are placed in the same place where I attempt a theatrical installation. Through this process, I seek the solidarity of individual values and hope that the viewers of my works could realize the value of the individuals with an unfamiliarized perspective.

Through my works, I hope to avoid neglecting unfamiliar moments. I sincerely hope to be in a state where I could accept the world around me as it is in an unfamiliar light (a state of ‘ ’ where my space is emptied and therefore exists as clearly as ever).

Key Words: affective narrativity, discontinuity, individuals, theatrical installation, corner, ‘ ’
Student Number: 2018-22225

작품 목록

작품1 <*거치지 않은 분기점*>, 테라코타, 나무팔레트, 혼합재료, 103×101.3×219(cm), 2018

작품2 <*파란 이곳과 저곳 그곳의 쓰임*>, 벚나무, 테라코타, 두부, 석쇠,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작품3 <*나는 당신의 어제를 알 수 없어요*>, 삼나무, 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작품4 <*계단에 올라 발판을 밟아주세요*>, 테라코타, 비계,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0

작품5 <*솔직하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이 유일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때에 그나마 오류가 적지 않겠습니까*>, 폐목, 사운드, 소금, 90×170(cm), 2020

작품6 <*아주 가까운 이를 위한 두루마리*>, 천, 자수, 가변설치, 2020

작품7 <*뾰족*>, 바늘, 빗,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0

참고 문헌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이성훈, 김광우 옮김, 미술문화, 2004

줄리언 반스, 『시대의 소음』, 송은주 옮김, 다산책방, 2017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홍명희,『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베르트랑 베르줄리, 『슬픈 날들의 철학』, 성귀수 옮김, 개마고원, 2007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김상훈 옮김, 엘리, 20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년 7월 19일 수정, 2020년 12월 27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서동욱 엮음,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문학과지성사, 2014

허수경, 『가기 전에 쓰는 글들』, 난다, 2019